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53 호

2021년 7월 15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7 월호] 2021 년 UNGC 리더스 서밋 하이라이트!
2. 여성역량강화프로젝트 TGE 프로그램 2 차년도 온라인 OT 및 Kick-off (7/28)

■ 본부 소식

1. 2021 UNGC 리더스 서밋 개최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DGB 금융그룹
2. [SDGs 솔루션] 글로벌 섬유 회수 시스템, 'i:CO'

■ UNGC 회원 뉴스

1. KCC 글라스, 유엔 산하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ESG 경영 가속화
2. LG 이노텍, 작년 온실가스 4.5 만 t 줄여
3. SK 이노베이션, 중기부-창진원과 '친환경 스타트업 생태계' 공동조성
4.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건설업 특화' ESG 평가모델 개발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Monthly Insights 7 월호] 2021 년 UNGC 리더스 서밋 하이라이트!

2021 년 7 월호 주제는 '2021 UNGC 리더스 서밋' 입니다. 이번 Monthly Insight 는 2021 리더스 서밋의 다섯가지 주제별 주요 세션의 핵심 내용과 각 세션 영상을 제공합니다. 또한 세션과 더불어 발간된 <지속가능발전목표 투자 및 금융에 관한 CFO 원칙>,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임금 개선>,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 등 UNGC 본부 자료를 소개합니다. 이 밖에도 뉴스로 보는 CSR 및 ESG 동향, Gender Equality Korea 와 Business Integrity Society 의 주요 콘텐츠를 담았습니다.

<주요 콘텐츠>

1. 2021 UNGC 리더스 서밋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2021 UNGC 리더스 서밋'이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 간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성평등 △SDG16 △기후행동 △반부패 등을 주제로 20,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본 서밋에는 대한민국 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각국 정상급 인사들을 비롯하여 기업과 관련한 주요 국제기구들의 수장, 다국적 기업 CEO 등 평소 만나기 어려운 연사 및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ESG 및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주요 이슈별 최근 동향과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UNGC 한국협회는 Monthly Insight를 통해 주제별 주요 세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제공합니다. 각 세션 영상을 클릭하면 전체 세션도 볼 수 있습니다. 본 서밋이 ESG 및 지속가능성 향상에 대한 혜안을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호에서 공유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2021 UNGC 리더스 서밋'의 주요 다섯가지 주제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성평등 △SDG 16 △기후행동 △SDG 17 △인권이었습니다.

첫번째 특별세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에서는 [△생활 임금 보장: 전 세계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약속](#) [△시급한 도전과제, 인권과 인종적 정의](#) [△인권 및 노동 원칙 \(1\) 비즈니스 책무: UNGPs 10주년 기념](#) [△인권 및 노동 원칙 \(2\): 비즈니스 책무: 인권에 대한 심층 대화](#) [△인권 및 노동 원칙 \(3\): 아동노동 종결을 위한 기업 리더십](#) 을 통해 특히 COVID-19 이후 취약해진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공유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채택 10 주년을 기념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번째 특별세션 **성평등**에서는 [△책임 경영: 직장 내 다양성 및 포용](#) [△웰빙의 핵심으로서 양성평등: 일본의 도전](#) [△UN 파트너와의 대화 및 정부 공공 정책 회담](#) 등을 통해 직장 내 차별 철폐와 다양성 포용 및 증진을 위한 UNGC 원칙을 기업에 내재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세번째 특별세션 SDG 16 에서는 [△반부패와 인권 교차점에서의 SDG 16](#) [△변혁적 거버넌스로 가는 길](#) [△반부패를 위한 연합: UNGC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 발간](#) 등의 세션을 통해 집단행동의 성과와 추세를 논의하고, 최근 개최된 2021 UN 총회 반부패 특별회의의 정신과 성과가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네번째 특별세션 기후행동에서는 [△글래스고와 Net Zero 로 가는 길: 1.5C 세상을 위한 신뢰감 있는 기후행동](#) [△CEO 패널토론: 과학기반감축목표 가속화](#) [△과학기반 지속가능 해양 비즈니스](#) 등의 세션을 통해 기업이 과학기반감축목표를 수용해야 하는 이유와 도전 과제, 그리고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DG 13 특별세션에서는 [공동 노력을 위한 앰비션 제고](#) 를 위해 [△지속가능성 현황](#) [△지속가능성을 위한 리더십](#) [△변화의 동인](#) [△SDG 앰비션과 행동 가속화](#)를 주제로 세부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2. 발간물 소개

지속가능발전목표 투자 및 금융에 관한 CFO 원칙

CFO Principles on Integrated SDG Investments and Finance



유엔글로벌콤팩트 CFO 태스크포스는 2021년 6월 15일, 1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 투자 및 금융에 관한 CFO 원칙'을 위한 주요 성과 지표(KPI)를 발표했습니다. 1년 전 런칭한 CFO 원칙은 SDGs 금융 및 투자를 위한 최초의 UN 기반 원칙으로써 기업들이 SDGs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약속을 기업 재무 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임금 개선
Improving Wages to Advance Decent Work in Supply Ch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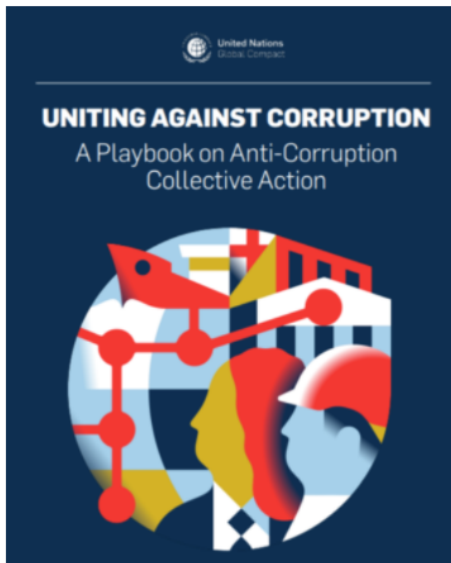


공급망 내 최저 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개선은 책임있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있어 중요한 과제이며, 이제 의지와 행동 모두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UNGC) 의 새로운 디지털 보고서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임금 개선"은 △생활임금의 중요성 이해, △기업이 공급망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생활임금 관련 현황, △기업의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하며, 근로 빈곤 해소를 위한 기업 책임과 생활임금 보장 방안에 대해 소개합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

UN Global Compact Anti-Corruption Collective Action Playbook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은 6단계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 부패 환경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이해 관계자를 식별 및 참여시키며, 공동 노력 방법론을 적용하여, 식별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적인 비즈니스 위험을 완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은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중 10번째 원칙인 "기업은 부당 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에 기반합니다. 플레이북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프로젝트 중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펀딩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본부소식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투자 및 금융에 관한 CFO 원칙>을 소개합니다. 1년 전 런칭한 CFO 원칙은 SDGs 금융 및 투자를 위한 최초의 UN 기반 원칙으로써 기업들이 SDGs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약속을 기업 재무 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공급망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임금 개선에 대한 인사이트>에 대한 소개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생활임금의 중요성 이해 △기업이 공급망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생활임금 관련 현황 △기업의 해결 과제 등을 제시하며, 근로 빈곤 해소를 위한 기업 책임과 생활임금 보장

방안에 대해 소개합니다.

또한 새로 발간한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 공동노력 플레이북>을 소개합니다. 플레이북은 6 단계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 부패 환경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이해 관계자를 식별 및 참여시키며, 공동 노력 방법론을 적용하여, 식별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적인 비즈니스 위험을 완화하도록 지원합니다.

3. 뉴스로 보는 CSR 트렌드

☞ 한국 갤럽과 국제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 네트워크 '윈(WIN)'이 공동 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기후 위기 인식이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34개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 따르면 34개국의 성인 85%가 지구온난화를 인류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대답한 반면, 한국인은 94%가 심각한 위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비관적 인식 역시 한국인은 54%, 세계인은 40%를 기록했으며, 낙관론의 경우 세계인이 54%인 반면 한국인은 45%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더해 한국인들은 환경에 개인보다는 기업과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로, 67%를 기록한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젊은 세대보다는 노년층이 기후변화에 더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국인 기후위기 인식 선두...세계인 1년새 기후낙관론 더 커져](#)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0년 여성 취업자 수는 13만 7000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9만 3000명을 기록했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기록되었습니다. 8만 2000명이 감소한 남성 취업자 수와 비교하면 이는 70% 가까이 더 큰 수준으로, 코로나 19가 야기한 '오프라인 경제'의 위축으로 인한 고용 피해가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용환경이 위협받는 가운데, 여성들은 새일여성인턴 제도와 같은 취업 지원 제도의 활용과 자기계발을 통한 창업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직격탄, 작년 여성 취업자 13만명 급감](#)

☞ 정부가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기업 경영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ESG 공시 투자관련 가이드라인을 민간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국내외 금융기관의 ESG 공시와 평가 요구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범부처 합동으로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후 핵심-공통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내년까지 산업·기업 별 차등화된 평가 기준과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2단계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공공기관 ESG 공시항목 확대...K-ESG 가이드라인 제정](#)

매월 기업 지속가능성 관련 최신 동향을 소개하는 <뉴스로 보는 CSR 트렌드> 코너에서는 한국 갤럽과 국제 시장 조사 및 여론조사 네트워크 '윈(WIN)'이 공동 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기후 위기 인식이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돈다는 조사 결과, 2020년 여성 취업자 수가 13만 7000명 감소했다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정부가 ESG 등 비재무적 기업 경영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ESG 공시 투자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소식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4. GEK/BIS 콘텐츠



[국내 동향]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기업의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 및 확산 추진



[글로벌 동향] BBC 50:50 프로젝트



[반부패 동향]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UNGASS 2021) - 정치 선언문



[반부패 동향] 2021 UN총회 반부패 특별회의 (UNGASS 2021)

마지막으로 UNGC 한국협회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Gender Equality Korea(GEK)와 Business Integrity Society(BIS)의 콘텐츠를 소개하였습니다. GEK 는 국내 동향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의 기업의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 및 확산 추진 소식을 다루었으며, 글로벌 동향에서는 BBC 50:50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BIS 에서는 2021 UN 총회 반부패 특별회의(UNGASS 2021)-정치 선언문과 2021 UN 총회 반부패 특별회의(UNGASS 2021)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Monthly Insights 는 회원사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으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회원사 실무진들에게 발송됩니다. Monthly Insights 관련한 문의 및 제안사항은 gckorea@globalcompact.kr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역량강화프로젝트 TGE 프로그램 2 차년도 온라인 OT 및 Kick-off (7/28)



2021년 7월 28일 (수) 14:00 -16:00
온라인 진행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7월 28일,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이하 TGE) 프로그램 온라인 OT 및 Kick-off 미팅을 개최합니다.

2 차년도 TGE 프로그램에는 전세계 45 개국, 500 여개 기업이 참여하며, 한국에서는 CJ 제일제당, KT, 롯데정밀화학, KH 메디칼, LG 전자, BGF, 동아쏘시오홀딩스, DGB 금융지주, MYSC, 한국타이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1 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이번 온라인 OT 및 Kick-off 미팅에서는 ▲2021 TGE 프로그램 운영 타임라인 ▲2021년 TGE 프로그램 참여사 ▲여성역량강화원칙 성 격차 분석 툴 (WEPs Tool) 사용 방법 안내를 비롯하여, 각 참여사가 참여하는 기업 현황 및 참여 동기에 대한 공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박희원 연구원, 02-749-2149)

[더 알아보기](#)

본부 소식

1. [2021 리더스 서밋] 개회사 Welcome to the Year of Ambition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지속가능성 컨퍼런스, '2021 UNGC 리더스 서밋'이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 간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성평등 △SDG16 △기후행동 △반부패 등을 주제로 20,000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20,000 명이 넘는 비즈니스 리더, 국가 정상, 시민 사회 지도자 및 유엔 대표들이 함께 모인 리더스 서밋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향한 진전을 가속화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야심찬 목표 달성을 촉구했습니다.



[김부겸 총리 개회사 영상 바로가기]

축사로 참여한 김부겸 대한민국 총리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포용적 녹색회복을 위한 2020 탄소중립을 주제로 P4G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회의를 통해 서울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제로 달성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달성 목표로 하는**

UNGC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며, 국제사회에 기여도도 높일 예정임을 밝히며, 글로벌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은 녹색 전환을 위한 공적 개발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6월 G7 정상회의, 9월 UN 고위급회담, 10월 G20 정상회의, 11월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UNFCCC) 등, 포용적 녹색 협약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탄소 중립 실현 노력을 적극 선도하겠다고 밝혔으며, UNGC도 이에 함께 협력하여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 개회사 영상 바로가기]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먼저 “올해 리더스 서밋의 주제가 ‘야망의 해 (The Year of Ambition)’ 라며, “COVID-19 팬데믹이 기후변화, 빈곤, 생물다양성, 사회 불평등, 빈곤, 보건 이슈와 같은 전 지구적 문제점, 특히 불평등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복을 준비하는 지금,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2021 리더스 서밋을 공론장 삼아 UNGC 회원사들이 그 누구도 뒤쳐지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동 노력 (Collective action) 의 첫 걸음을 내딛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산다 오잠보 사무총장 개회사 바로가기]

이어, 산다 오잠보(Sanda Ojiambo)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은 COVID-19 팬데믹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no one is truly safe until everyone is safe)”이라며, 협력과 연대가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0년 한 해에만 2,00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하고, 현재 16,000개 기업 및 기관이 UNGC에 동참하고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업이 세운 목표와 행동 사이의 갭(행동)을 메우는 데까지는 아직 요원하며, 그 간극을 줄이는 방법이야말로 2021 리더스 서밋에서 이들 간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질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 리더스 서밋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26시간 동안 진행될 리더스 서밋 이후에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DGB 금융그룹



UNGC 가입: 06. 7. 18

DGB 금융그룹은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5월 설립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비은행 사업라인 강화 및 수익원 다변화를 기함으로써 DGB 대구은행, 하이투자증권, DGB 생명, DGB 캐피탈, DGB 자산운용, DGB 유페이, DGB 데이터시스템, DGB 신용정보 등 계열사 8곳을 보유한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과 함께'의 경영이념과 '미래를 함께하는 Best Partner'의 경영비전을 가지고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DGB 금융그룹이 기반을 두고 있는 대구·경북에도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DGB 금융그룹은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민 모두 장기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위축된 경제활동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이 어려워지고 소상공인과 서민층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DGB 금융그룹은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더욱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재난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DGB 현장지원단 운영

DGB 금융그룹은 각 계열사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기업들에게 신속한 금융지원 및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단은 DGB 금융지주 시너지사업부, DGB 대구 은행 여신심사 역과 기업컨설팅전문가, 하이투자증권 리서치&IB 전문가, DGB 캐피탈 기업여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자금지원, 금리감면,

대출상환 기한연장, 업황 정보제공, 회사채 발행, IPO 관련 금융상담, 기업대출과 리스, 할부금융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DGB 대구은행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본격화된 지난 2월 초부터 1,000억 원 규모의 특별 대출을 통해 직·간접 피해 기업의 초기 정상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확진자 발생지역 외에도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범위를 확대해 지원하였습니다. 4월 초부터는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포용금융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 기업여신 비중이 50% 이상인 주거례 중소기업 중 제조업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DGB 대구은행은 정부의 '금융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일환으로 소상공인 1.5%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하며, 코로나 19 피해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 상담팀을 운영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신속한 심사를 지원합니다. 또한 만기 도래 대출 연장, 6개월 이자 유예, 유예 이자 분할 또는 일시 납입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여 및 사업소득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지원

DGB 대구은행은 코로나 19 피해 고객과 대구·경북 거주 고객 중 생활이 어려워진 급여 및 사업소득자 대상으로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17, 쓰담쓰담대출, 비상금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총 2,000억 원 한도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고객의 경우 영업점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비대면 대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고객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보살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난 극복을 위한 기부 및 회사 인프라 제공

DGB 금융그룹은 금융지원 외에도 인적·물적 자원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DGB 금융그룹은 지난 3월 초부터 칠곡군 연수원을 경증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지원 업무가 폭주하는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에 인력을 파견하여 신속한 업무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고객 안내 및 서류 심사를 위한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대구시 행정복지센터 139개소에도 선불카드 및 상품권 지급 업무를 위해 인력을 파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구광역시 코로나 19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 DGB 대구은행 전 영업점에서 지원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DGB 금융그룹은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성금 10억 원을 기부하였고 기부금은 대구·경북에 각각 5억 원씩 전달하였습니다.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물품 및 코로나 19 피해자 구호사업과 의료진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DGB 금융그룹 경영진은 지역민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4월부터 7월까지 급여의 20~4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반납한 급여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 역시 임직원들의 자발적 성금과 급여 1% 나누기 운동으로 조성된 성금 1억 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일부 영업점이 일시 폐쇄되고 내점고객 감소 및 영업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DGB 금융그룹은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전사적으로 위기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룹 위기대응협의회 운영

DGB 금융그룹은 코로나 19 를 비롯한 당 그룹 주요 위기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그룹 위기대응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계열사의 경영 환경과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등 그룹위기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DGB 대구은행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가정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코로나 19 발생 1 년차와 2 년차의 거시경제 변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영향도를 분석하였습니다.

위기대응 매뉴얼 가동

영업점 폐쇄에 대응하여 2 차·3 차 대체영업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부서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여수산업 및 고객지원 관련 각종 영업방안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담직원 교육과 비대면 채널 고객응대 강화, 온라인 상품서비스 마케팅, 코로나 19 금융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비대면채널 영업 활성화 방안들도 시행하였습니다. 영업점 소독과 일시적 재택근무 및 분산근무, 임직원의 직장 내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개인위생관리, 사회적거리두기 등 조직 내 코로나 19 대응 노력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선제적인 금융 정책들을 내놓으며 위기 대응에 힘쓰고 있지만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의 동시 충격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자영업자의 부실이 진행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수출산업의 경기가 악화되어 자동차, 기계, 철강, 섬유 등 주요업종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품산업이 주요 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DGB 금융그룹은 코로나 19 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리스크 관리, 경영효율화, 대고객 관리 등 세부 실행계획과 로드맵을 도출하고 각 계열사 및 부서별로 업무와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해외 법인의 자산현황을 점검하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한 디지털 업무환경 구축

향후 코로나 19로 금융시장에서의 영업환경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DGB 대구은행은 미래 영업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문서 처리와 후속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업무자동화(RPA) 적용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변화하는 근무 형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SDGs 솔루션] 글로벌 섬유 회수 시스템, 'I:CO'



I:CO는 중고 옷, 신발 및 기타 의류들을 재사용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글로벌 회수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I:CO는 전 세계에 걸친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비자와 기업 간의 간단한 회수 시스템을 통해 의류와 신발에 사용된 재료들이 지속적으로 '폐쇄적 제품 순환 사이클(closed-loop product cycle)' 내에서 활용되도록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I:CO는 가공된 재료들의 수명을 늘리고, 제조업체들이 설계 과정에서 자원의 사용에 대해 고민하도록 장려합니다.



대규모 소매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고 신발과 의류들은 매장과 기타 소매점에 모이게 됩니다.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소비자들은 중고 물품 제공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습니다. 제공된 중고 의류, 신발, 직물들은 350 개 이상의 추가적인 가공 및 재활용 기준들에 따라 분류됩니다. 사용되었던 의류들은 중고 물품으로 판매되기에 적합한 경우 라벨링되거나, 섬유나 안감 충전재로 재활용되거나, 동급의 혹은 더 높은 품질의 제품으로 업사이클링될 수 있습니다.

*"폐쇄적 제품 순환 사이클 (closed-loop product cycle) 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스테판 위겐드(Stephan Wiegand), I:Collect AG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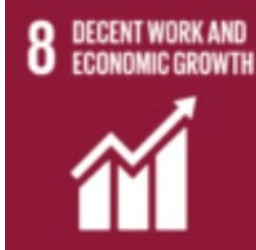
왜 I:CO 솔루션에 주목해야 할까요?

중고 직물과 신발들은 면화, 가죽, 폴리에스테르와 같은 천연 또는 석유 기반의 가치 있는 자원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품들은 한두 번 사용된 후 매립지에 버려집니다. 중고 직물과 신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대체 가능한 방법은 이를 새로운 제품을 위한 원료로써 재가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달성하기 위해 I:CO 시스템은 재활용 루프(loop)를 폐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익성이 높은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I:CO는 케냐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의류를 모아 지역의 재활용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소매업체를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재활용 과정을 통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I:CO는 매일 수백 톤의 중고 의류를 공급받아 매립지로 보내지는 폐기물을 줄입니다. I:CO는 60개 이상의 소매업 파트너들과 함께 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기후 행동



가공된 재료들을 순환되게 하면, 석유나 가축과 같은 원재료를 실, 가죽 등의 가용 가능한 재료로 전환할 때 생산되는 배출물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 뉴스

1. KCC 글라스, 유엔 산하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ESG 경영 가속화



- KCC 글라스, ESG 경영 강화를 위해 UNGC 에 가입
- KCC 글라스는 이번 가입을 통해 UNGC 의 핵심 가치를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는 한편,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적극 동참해 2025년까지 'ESG Leading Company'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힘
- UNGC 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포용적 비즈니스가 주류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UNGC 가입이 KCC 글라스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ESG 기반 사회책임경영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함
- KCC 글라스 관계자, "환경과 사회 이슈에 있어 기업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가입했으며, 앞으로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경영 가속화에 더욱 노력하겠다" 고 강조함

뉴스

2. LG 이노텍, 작년 온실가스 4.5 만 t 줄여



- LG 이노텍, 12 일 발간한 2020~2021 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4.5 만 t 절감했다고 밝힘
- 또한 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ESG 위원회 등을 소개하였으며,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동반성장 펀드, 협력사 진단 활동 및 지역사회와 소외 이웃을 위한 활동 소개함
- 이 밖에도 지배구조분야에서 배당금 전년 대비 2 배 이상 확대, 전자투표제 도입, 감사위원회 내 독립적 내부 감사부서 설치, 이사회 내 내부거래위원회 신설 등 주주친화 정책 소개함
- 정철동 LG 이노텍 사장, " 100 년 영속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고객가치 제고를 통한 사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아시아경제

3. SK 이노베이션, 중기부-창진원과 '친환경 스타트업 생태계' 공동조성



- SK 이노베이션, ESG 생태계 확장을 위해 참여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주관하는 '창업도약패키지-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에 나섬
- 또한 최근 발표한 파이낸셜 스토리의 방침에 따라 친환경 분야에 함께 할 예정이며, 저탄소·배터리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친환경을 주제로 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20 개사를 선정할 방침
- SK 이노베이션은 스타트업 중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워크숍을 통해 SK 이노베이션 계열 사업 자회사들과 협업하도록 해 공동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며, 임팩트 펀드와 공동 투자를 통해 성공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방안도 검토키로 함
- 조경목 SK 에너지 사장, "정부, 대기업, 임팩트 펀드가 함께 친환경 기업 창업 성공 사례를 만들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함

이코노믹리뷰

4. 포스코건설, 업계 최초 '건설업 특화' ESG 평가모델 개발

posco

포스코건설

- 포스코건설,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건설업에 특화된 ESG 평가모델 개발
- 건설업 ESG 는 친환경 자재구매, 온실가스배출, 환경법규 위반 등 환경부분 10 개 항목과 중대재해여부, 안전시스템, 근로조건준수 등 사회부분 30 개 항목, 지배구조, 채무불이행, 회계투명성 등 지배구조 부분 10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포스코건설은 오는 8 월 말까지 포스코건설의 우수협력사를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시행하고, 2022 년까지 약 700 여개의 공사 관련 협력사 전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또한, ESG 경영역량 평가 비용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을 적극 실천하고, 협력사들이 재무적 부담 없이 ESG 경영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함

뉴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 회원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1 곳입니다.

- KCC 글라스

2. COP/COE 제출회원

7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9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동아쏘시오홀딩스
- BNK 금융지주
- 안양도시공사
- 엠와이소셜컴퍼니
- GS 건설
- CJ 대한통운
- 예금보험공사
- CJ 제일제당
- 코웨이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2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매출액 USD 5,000만 달러 이상 기업)>

한국동서발전, 한전 KPS, CJ 대한통운

<1-2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슬로워크, 길바이오,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수목원관리원,
부산경제진흥원

2019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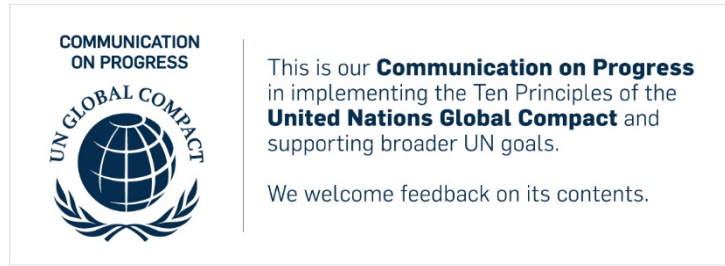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 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박희원 연구원